

원인과 하반기 전망 종란 수급 불균형의



이 광 초
경인축산 대표

우 리나라의 양계산업은 항상 살얼음을 걷는 듯이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느껴진다. 산물가격이 생산원가에 훨씬 밀돌아 인건비는 커녕 원재료비도 회수하지 못하는가 하면 산물가격이 치솟아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생추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등락이 심하여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도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계산물의 주요한 생산 원자재인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적당한 물량의 종란을 생산하여 양계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나열하고 금년 하반기의 종란 및 초생추 수급 상황을 추정하였으면 한다.

1. 종란 수급 불균형의 요인

1) 연중 계육 소비량의 변동

우리나라에서 계육은 칠팔월 삼복중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구시월 추석 직후의 계육소비는 연중 최소량으로 알고 있다.

연중 계육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의 적은 시기와 어느 정도의 계육이 소비되는가? 직접 계육 유통에 참여하는 중간상인들에 의하면 삼복 중에는 연중 평균 소비량의 1.5 내지 2배 이상의 계육이 소비되는 것으로 짐작되며 추석 직후의 비수기에는 연중 평균 소비량의 1/2 내지 1/3 정도로 소비가 급감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2) 소비의 생산에 대한 자료 부족

앞에서 말한 계육의 시기별 소비 증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나 실제로 몇 월에 어느정도

의 계육이 소비되는지 또는 월별 소비지수는 어떠한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계육을 생산하는 곳이나 판매에 관여하는 곳이나 또한 이들의 협의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현상은 초생추 생산 수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자료나 기타 협회에서도 정확한 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3) 원종계, 종계의 입식 성향

원종계의 연중 시기별 입식수수는 연중 시기별 종계의 생산량을 좌우하므로 원종계의 입식 시기나 입식수수는 원종계 농장의 판매능력이나 입식된 종계가 종란을 생산하는 시기의 종란 수요량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원종계의 입식시기나 입식수수는 이와 상관없이 종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종계 초생추의 생산량이 증가하도록 혹은 자신의 품종이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경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화장의 종계 입식시기나 입식수수 또한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4) 부화장의 초생추 생산 성향

우리나라의 연중 초생추가격의 변동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복이 매우 심한 편일 것이다. 초생추 생산 수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600원이 넘는 시세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공급이 과잉될 때에는 100원도 못되는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교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화장은 초생추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종란 생산 숫자를 증가하며 반대인 종란생산 숫자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공급과잉으로 돌변하는가 하면 공급과잉 상황에서 종란 생산을 감소시키다 보니 공급부족 상황으로 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5) 계열업계의 종계 입식 성향

부화장의 경우와는 달리 계열업체는 자체생산 초생추의 생산수수를 계획하는데 있어 초생추 가격이나 계육소비의 증감에 따라 생산을 조절하기보다는 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로 해서 모든 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는데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중 동일한 숫자의 초생추를 생산하려 한다.

그러므로 종계입식에 있어서도 국내의 생산 가능한 종계 수준에 상관없이 자사의 물량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국내 생산되는 종계의 숫자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계를 수입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초생추나 종란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6) 양계장의 초생추 입식 성향

양계장의 입식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약사육업자로서 이들은 연중 많은 수수의 초생추를 입추하고 연중 여러번 입식하여 사육수수료의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다른 자영 양계업자는 육계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입식하려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육계산업에 있어서 생산활동은 수요와 공급의 조화라는 전제아래 생산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코앞의 수입증대의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측한 상황이 빗나갈 경우에는 어느 업체건 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종란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되며 막상 수요에 의한 종란공급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시중에서 형성되는 초생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종란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같은 상황에서 초생추 수요가 적어 초생추 가격이 하락하면 종란이 과잉되었다고 생각하는 오판이 계속될 수 있다.

2. 하반기의 종란 수급 전망

오랜기간 산물이나 초생추 가격이 고가를 유



지하여 부화장이나 계열업체의 생산수량이 많이 증가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종계 농장은 원종계의 수입수수를 대량으로 증가하였으며 부화장이나 계열업체의 종계입식수수도 증가하여 하반기 초생추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6년 1/4분기 종계 입식수수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무려 37%나 증가되었으며 '96년 11월 이후 초생추 생산 잠재력은 예년의 북병아리 생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의 종란 수급 전망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이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계육의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하반기의 육계업계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하반기의 종란 수급은 잠재력이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종계 중 많은 수수가 피크 산란기를 지낸 노계군이라 노계 도태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의 업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양계**